





***COLD
AND
REFRESHING!***

REACH FOR THE FIRST BOTTLE THAT TELLS YOU
WHEN YOUR BEER IS COLD—THE COORS LIGHT® COLD ACTIVATED BOTTLE.
IT'S WHAT COLD BEER LOOKS LIKE.



THE WORLD'S MOST REFRESHING BEER™ 

Miller

NEW
BOTTLE
FRIDGE
PACK

PACK ON

THE PROFITS



Great Taste...
Less Filling.

USE SIDE
CARRY
HANDLE

Miller
Lite
TRUE PILSENER
BEER

12-12 FL. OZ. BOTTLES

Only 3.2g carbs and
95 calories. Choicest Hops
for Premium Taste.

12-12 FL. OZ. BOTTLES

목 차

Officers

President

Seong Chil Heo
New York

Vice-President

Young Pil Kim
Canada

Vice-President

Calvin Choi
Arizona

Vice-President

Jong Heo
Southern California

Vice-President

Jong Hwan Lee
Harrisburg, PA

Vice-President

Gwang Seo Lee
Maryland

Vice-President

Hwan Yun Eo
Washington D.C

Vice-President

Ik Ju Kim
Canada

Vice-President

Byeong Mok Gang
New York

Auditors

Seung soo Lee
Gwang Ik Lim

- 6. 회장 인사말
- 8. 이사장 인사말
- 11. KAGRO 포토 갤러리
- 15. 각 지역 협회소식
- 29. KAGRO 소식
- 31.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 34. 경제뉴스
- 37. 건강뉴스
- 38. 회장단 및 스폰서 소개

Board of Directors

Chairman

Jin Sup Hong
Washington D.C

Vice Chairman

Baek Gyu kim
Georgia

Vice Chairman

Hui Cheol Lim
Philadelphia

Vice Chairman

Se ki kim
Chicago

Vice Chairman

Hui Jun Kim
Central California

Vice Chairman

Hyeon Oh Lee
Washington

Advisors

Ki Ok Kim
Yang Il Kim
Ki Pung Jeon
David H Kim
Andrew Ku
Ju Han Kim
David kim
Yong Wong Han

CONTENTS

Board Members

KAGRO International

Arizona
LA California
Central California
Northern California
Chicago
Colorado
Dallas
Delaware
Georgia
Harrisburg
Hawai
Maryland
New York
Oregon
Philadelphia
Tennessee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
Calgary, Canada
Edmonton, Canada
Manitoba, Canada
Ontario, Canada
Quebec, Canada
Vancouver, Canada
U.K.B.A Canada

- 6. President's Message
- 8. Chairmans Message
- 11. KAGRO Photo Gallery
- 15. Chapter News
- 29. KAGRO NEWS
- 31. The 11th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Jeonju
- 34. Business News
- 37. Health News
- 38. Board Members & Sponsors

Editorial Staff

Publisher

Seong chil Heo

Editor

Justin Lee

Journal Advisor

Justin Lee

International KAGRO
is a member of the
FMI Association
Council and a
member of the NGA
Association Council.

회장 인사말

Greeting of President



허 성 칠 회장

20만 재미 식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리하게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반갑고 기뻐야 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이 연방정부 섯다운을 겪으며 그 여파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더구나 연방 정부가 각종 복지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고 새로이 시작하는 오바마 케어는 아직 명확한 윤곽이 잡히지 않아 이래저래 국민들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품인들은 지금까지 온갖 역경을 헤치며 오늘을 이룩한 그 마음과 잠재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49차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총회가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립니다.

세계 한상대회 기간 동안에 열리는 이번 총회는 대한민국과 지구촌 한인들의 역량을 모아 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그 중심에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번 총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미래를 향한 도약에 재미 동포 경제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접목시키고 개발 할 것입니다. 같은 기간에 열리는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도 참관하고 방문해 지방 행정과 자치 단체의 경제 개발 플랜, 해외 동포 경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입니다.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 한식의 세계화는 물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행사가 됐으며 본 국제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와 한식, 한국 문화 전파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가기로 마음을 통한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또 한상 대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49차 총회를 통해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가 나갈 방향과 새로이 추진하는, 시대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와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입니다. 늦게나마 보다 많은 회원들과 각 분야의 동포들이 참석해 고견을 나눌 수 있도록 본 총연 회원과 가족 여러분들이 권유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보다 풍성한 가을, 보다 힘찬 미래가 열린다는 희망 바이러스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 성 칠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

Greetings KAGRO International Chapter Presidents, Board Members, Family, and Friends:

The hot and humid summer has passed, and autumn is upon us.

Though we are grateful to be here, the economic situation is still fresh in our minds. Due to the government shutdown of the United States, many businesses across the United States are suffering. However, KAGRO International will continue on and support small businesses as we have before.

Amongst all the issues we have across the world, we are thankful to be here, and to be hosting our 49th KAGRO International meeting in Gwang Ju, South Korea alongside the 12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The 12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is an opportunity for all Koreans around the globe to network and share our visions for the future. Partnering with KAGRO International, together we will use this opportunity to develop and plan how South Korea and Koreans can lead the world.

Also at this time, the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is taking place in Jeonju, South Korea. We will also use this opportunity to get together with participants of the IFFE to further expand the culture of Korea across the globe.

Our 49th KAGRO International meeting is opening for the 12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and we are excited to share with you all new ventures, opportunities, and vision for our future.

I hope you can share your enthusiasm to everyone that hard work will lead to many opportunities in the future. Thank you.

PRESIDENT OF KAGRO INTERNATIONAL ASSOCIATION
SEONG CHEL HEO

이사장 인사말

Greeting of Chairmans



홍진섭 이사장

전국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하늘과 누런 들판이 가을이 바로 옆에 왔음을 알려 줍니다.

그러나 힘찬 농군의 추수 소리가 드넓은 평야와 높은 하늘에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광경에서 왠지 모르게 하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나 혼자만의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잇단 우울한 소식이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림에서 무언가 하나를 빼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각종 불편 사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편한데 그치지만 나중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현상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불편하다고 발만 동동 구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사자들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본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이번 49차 총회를 대한민국 광주에서 갖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힘주어 실시하는 세계 한인 상인대회 기간에 맞추어 우리가 총회를 여는 것은 재미 식품인들은 물론 지구촌 한인 경제인들이 모국을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나누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다는 의미이며 본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한상대회가 열릴 때마다 본 국제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대회 운영과 조직 구성에 참여해 대회를 이끌어 가는 실무적 수장의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한국의 향토 기업,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안내자 역할과 현지 개척자 역할을 맡아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이로운 촉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49차 총회도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총회가 끝나면 한국의 식(食)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음식을 통한 건강 지킴이, 전통 음식의 수출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를 참관하게 됩니다.

이번 49차 총회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며 보다 많은 회원들과 대의원들이 참여해 힘과 지혜를 모으며 한 목소리로 우리의 외침을 세계 곳곳에 전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챕터 대의원들과 일선 회원들의 노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이번 총회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 합니다.

회원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풍요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섭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이사장



PEPSICO



Tropicana



Visit us at www.kagro.org

Our organization profile

Advertising opportunity for KAGRO Journal

Link for various KAGRO capture and Affiliate Organizations.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경험담이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또는 여러분의 의견과 잡지에 대해 느끼신점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들 그리고 사업운영하며 협회에 건의사항 등 모든글들을 환영 합니다. 영어나 한글 편하신 언어로 사진 · 연락처와 함께 email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nd your submission to : kagronational@gmail.com

361-3rd Ave, New York NY 10016



Advertising space available for KAGRO Journal

KAGRO Journal Ad ask Seong c. Heo [917 650-2125](tel:9176502125)

361-3rd Ave, New York NY 10016

e-mail : kagronational@gmail.com

KAGRO Photo Gallery

Providers of the TIP Programs 알코올 매니지먼트 교육

총연 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TIP프로그램에 10개의
지역 첩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8월 26일~27일 까지 버지니아에서 있었다.





워싱턴 DC 식품협회 골프대회

워싱턴 DC 식품주류협회에서 이번 9월 8일 불우 이웃 및 독거 노인 등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골프 대회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CHAPTER NEWS

남가주 한인 식품협회

● 남가주 한인식품협회 김중철 신임회장 선출

최근 통합과정을 거친 남가주 한인식품협회(KAGRO)가 지난 20일이사회를 열어 선거를 통해 신임회장에 김중철씨를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3명의 참석 이사들이 허종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회장에 김중철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신임 회장은 KAGRO 이기원 이사장과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 운영을 이끌어 나갈 회장단을 꾸리게 된다고 KAGRO 측은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앞으로 협회 운영을 투명하게 열린 자세로 해나가겠다"며 "무엇보다도 KAGRO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이를 위해 ▲회원 증대 운동 ▲골프대회와 बैं킷 등을 통한기금 조성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 대상 협회 고문변호사 및 회계사 자문 지원 등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공익소송, 협회 차원에서 대처할 것

"협회가 장애인 공익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남가주 한인식품주류상협회(KAGRO)가 새 회장을 중심으로 한 재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협회의 김중철 신임회장과 이기원 이사장은 10일 LA한인타운내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몸살을

앓는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최우선 과제는 장애인 주차 공간이나 접근 시설 등의 미비를 문제로 장애인을 낀 전문 변호사들이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공익소송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협회는 우선 고문 변호사와 협회 전담 시공업체를 선정해 회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장애인법이 바뀐 것에 맞춰 새로운 종류의 소송이 나오고 있지만 한인 리커스토어들이 가진 정보나 대응 방식은 너무 미흡하다"며 "협회의 규모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인 리커스토어들이 협회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낼 때 모두를 위한 혜택이 가능하다"며 "공익소송은 사전에 법규를 모두 지키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걸 협회원들에게 적극 계몽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외에도 대형 도매업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깨진 공병 수거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남가주 일대 경찰서 지원 사업 등도 펼칠 계획이다.

● 판매세 문제로 사업체 거래가 중단 사례 발생

미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각종 비즈니스 거래가 지지개를 펴고 있는 가운데 판매세 문제로 사업체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거래 계약을 끝낼 경우 새 주인이 밀린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에서 1년 전에 이민 온 김모씨는 최근 이스트LA에서 한 도넛업소를 에스스로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낮은 가격에 구입했는데 매입 후 셀

러로부터 가주 조세형평국(BOE)이 발행하는 세금완납 증명서(certificate of tax payment)를 발급받지 못했다. 김씨는 셀러가 3만달러에 달하는 판매세 미납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며 조세형평국은 현 오너인 김씨에게 판매세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우스LA에서 최근 마켓을 구입하려고 했던 박모씨는 셀러가 세금완납 증명서를 전달하지 못해 매입을 포기했다.

박씨는 “처음 거래가 오고갈 때는 판매세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에스스로가 끝나기 며칠을 앞두고도 세금완납 증명서 미비로 달성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가주 조세형평국 등 관계기관들의 세무감사가 부쩍 강화돼 에스스로 종결 때 셀러의 판매세에 대한 의무감사를 거의 모든 사업체에 예외 없이 실시하면서 이 문제로 매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에스스로 전문가들은 셀러가 판매세를 내지 않고 사업체를 넘기게 되면 미납된 세금이 바이어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승계의 의무’(successor’s liability)가 있기 때문에 밀린 셀러의 판매세 세금은 최종 매입 전에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의 주인이 바뀌어도 전 오너가 내야 할 세금이 새 주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돼 이를 처리하느라 많은 고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이어가 에스스로 회사와 수시로 접촉하며 문제가 없는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과정은 에스스로가 종결될 때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 하에 셀러에게 지급될 대금의 일부를 유예하고, 나중에 셀러가 판매세를 완납했

다는 증빙서류(certificate of payment)가 에스스로 회사에 제출되면 유예했던 대금을 셀러에게 돌려주면서 매매가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한다.

증명서의 신청방법은 마지막 판매 보고서를 담당 회계사에게 받아 해당 조세형평국의 지역사무소를 방문, 모든 세금을 완납하고 에스스로용 세금완납 증명서를 신청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10일 안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받을 수 있으며, 위의 증명서 신청 때 반드시 에스스로 지침서, 종결 지침서, 장비목록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타운 내 한 에스스로 업체의 오피서는 “최근 주정부가 예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판매세에 대한 감사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이 기록이 사업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체 매각 전에 담당 세무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에스스로 종결 후 사업체 매각대금을 유예 당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남가주 한인식품협회 ‘LEAD’ 교육 실시

“합정수사에 걸려 수천, 수만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라이선스를 잃는 한인 업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LEAD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액을 줄이고 라이선스도 지키기 바랍니다.” 남가주 한인식품주류상협회(KAGRO)가 최근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의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단속이 크게 늘자 주류를 판매하는 한인 리커 및 마켓 그리고 요식업 업주들을 위한 주류판매 교육 ‘LEAD’(Licensee Education on Alcohol and Drugs) 프로그램을 오는 21일 오후 12시30분 LA 한인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올림픽 경찰서의 단속 전문가들이 나와 주의점과 예방책 등을 전달한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주류통제국은 지난 1991년부터 리커스토어 등 주류판매점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술을 파는 것에 따른 책임, 주류판매 규정 준수 등을 교육하기 위해 LEAD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이들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15만명이 넘는다.

주류판매점들은 규정을 어기고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최고 3,000달러 벌금을 내거나 7~14일 판매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두 번째의 경우 벌금은 수만달러가 넘게 되고 30일 판매금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선스를 박탈당한다. 그러나 LEAD 프로그램을 이수한 업주 혹은 종업원들이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될 경우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업소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KAGRO의 윤 철 총무는 “이 프로그램을 모르는 단속된 한인 업주들이 그냥 벌금만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티켓을 받으면 단속기록은 영원히 남게 된다”며 “LEAD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단속 후 처벌 완화는 물론 전반적인 주류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위해 다과를 준비한다. 장소 문제로 참가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예약을 하면 좋다.

담배류 타주서 반입 판매 한인 체포

연방 수사당국이 담배제품의 불법 무자료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천만달러 규모의 담배류를 불법 유통시켜 온 한인 등이 사법당국에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30일 연방 검찰과 연방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에 따르면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의 한인이 3,700만달러 상당의 담배류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체포되고 또 다른 아시아계 부부도 수백만달러 규모의 같은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등 남가주 지역 아시아인들이 연루된 담배류 불법 유통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ATF 수사관들은 지난 28일 사이프레스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52)씨를 담배류 불법 유통 및 판매혐의로 체포했다.

이번에 체포된 김씨는 ATF가 우편판매를 이용한 사기 수사에 나서면서 달미가 잡혔다. 김씨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ATF는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와 합동수사에 나선 끝에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씹는 담배 등을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들여와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5년 전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에 상호명이 각각 다른 담배 유통회사와 소매업체를 차렸다. 이후 그는 타주에 3,700만달러 상당의 담배를 주문하고 트럭 등을 사용해 몰래 캘리포니아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김씨가 타주에서 몰래 들여온 담배를 자신의 유통망을 이용해 되팔고 이 과정에서 탈세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담배 유통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롱비치, 버논, 파라마운트 지역에 소매업체를 차리고 할인제도까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김씨의 탈세액이 약 1,600만달러라고 전했다. 주 조세형평위원회 제로메 호튼 위원장은 “각종 탈세범죄로 인해 가주는 1년에 약 85억달러 수입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방, 주, 지방 정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하경제의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TF 관계자도 “이번 단속은 담배 불법 유통에 나서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검찰 기소에 따라 김씨는 9월12일 새크라멘토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한다. 검찰은 김씨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9일에는 30대 아시아계 부부가 김씨와 똑같은 행각을 벌이다 담배 440만달러치 불법 유통혐의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과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는 지난 수년 동안 합동수사반을 꾸려 담배 불법 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한인 식품협회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시간당 10달러’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하는 법



안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법제화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25일 LA 다운타운 주청사에서 재계와 노동

계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루이스 알레호 주 하원의원의 발의로 주 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법안(AB10)에 서명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간당 9달러로 오르게 되며 2016년 1월1일부터는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된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경제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근로자들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경기침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들의 부담이 커지고 주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뉴욕 한인 식품협회

● **뉴욕시내 식당 위생등급 위반 벌금 대폭 완화**
한인을 포함한 뉴욕시내 식당 업주들이 위생등급심사로 받는 벌금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위생등급심사 위반사항의 벌금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벌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을 18일 공개했다. 위생등급심사를 관할하는 뉴욕시 보건국과 합의를 거쳐 발표한 관련법은 기존 검사관들의 자유재량에 따라 2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매겨졌던 벌금을 대폭 완화해 기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간 위반사항의 60%를 차지하던 경미한 위반사항

은 벌금이 200달러로 제한돼 기존보다 15%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실제로 잘못된 하수처리시설과 주방용기 보관, 가을·겨울철 파리 발견에 따른 벌금은 건당 각각 평균 348달러, 295달러, 256달러에서 각각 42.5%, 32.2%, 21.9%씩 줄어든다. 또한 심각한 위반사항에 속하는 벌금도 기존 349~420달러에서 앞으로는 300~350달러로 낮아진다.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무면허, 등급사인 미부착, 위생검사관 방해 등 위생등급제 운영과 관련된 위반사항 벌금은 일률적으로 1,000달러로 책정된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위생등급제는 뉴욕커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식당 업주들에게 벌금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관련법이 시행되면 연 1,000만 달러의 벌금이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벌금을 대폭 낮추는 내용 이외에도 ▲첫 위생등급 심사에서 A등급에 해당하는 14점미만의 벌점을 받으면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싱크대 설치 등과 같이 식당 구조와 관련해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벌금 대신 1차적으로 시정 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전 교육을 위한 연습용 인스펙션 실시 ▲업주들의 의견과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고충처리반 개설 ▲모든 요식업소에 최초 위생검사 방문 전 일률적인 점검표 배포 ▲위생등급제도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 구성 ▲식당 위생등급 관련 통계 발표 활성화 ▲식당 외관이나 구조와 관련된 위반사항 완화 등 식당 업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관련법은 이달 22일 열리는 시회의에서 정식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뉴욕주 ‘탈세 담배와의 전쟁’**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이 블랙마켓에서 판매되는 탈세 담배 퇴치를 위한 전담팀 신설 법안을 내놓고 ‘탈세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아벨라 주상원의원은 26일 뉴욕한인식

품협회, 뉴욕시소상인총연합회(SBC) 등 관련 협회 대표들과 함께 플래싱 유니온 스트리트에 위치한 델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발의한 블랙마켓 담배 판매 규제 태스크포스 신설에 대한 법안(S.5918)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벨라 주상원의원은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60.9%는 모두 담뱃세가 싼 타주에서 들어온 불법 담배"라며 "이는 주정부의 세금 손실 뿐 아니라 담배 판매 업소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 동안 주검찰이 차량 불심검문을 하거나 시의회가 타주 담배 판매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은 있었지만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기구나 구체적인 법안은 없는 실정"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담배 블랙마켓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9명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는 뉴욕주검찰청장을 총책임자로 하며 재정서비스국장, 보건국장 등 관련 기관의 국장들과 민간단체 대표로 뉴욕시소상인총연합회(SBC)의 김성수 회장이 포함된다.

김 회장은 "블랙마켓에서의 담배 판매는 탈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탈세 담배 유통이 범죄나 테러 조직과 연루돼 자금이 이들에게 들어가는 만큼 뉴욕커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는 블랙마켓 담배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논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블랙마켓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5월 뉴욕시 세리프국이 뉴욕시 담배 판매업소 1,105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86곳에서 타주에서 들어온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에서 부과하는 담뱃세는 한 갑당 5달러85센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세금이 20분의 1 수준인 버지니아주 등에서 대량으로 담배들이 밀수되고 있다. 뉴욕한인식품협회 이종식 회장은 "타주에서 들어오는 담배들은 세금을 물지 않고 한 보루에 30~40달러 정도에 거래되며 정식 라이선스를 소지한 뉴욕의 판매 업소들에서는 110~13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어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법안

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이나 주의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 미성년자에 술판매 낭패

한인업주 함정수사 걸려 체포 속출. 수만달러 소송도
한동안 잠잠하던 뉴욕시 당국의 미성년자 대상 술판매 함정수사가 강화되면서 또다시 적발 한인 업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종전과 달리 적발된 한인업주들이 현장에서 수갑까지 채워져 체포되는가 하면 형사 소송을 당하고 수만 달러의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업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5일 한인 식품업계에 따르면 퀸즈와 브루클린, 맨하탄 일대의 청과상, 델리 그로서리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 판매에 대한 함정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적발되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특징은 벌금 티켓만을 발급하던 기존과 달리 술을 판매한 업주 또는 종업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는데다 3차례 이상 불법 판매 행위가 포착된 업소 경우에는 경찰이 소송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송을 당한 업주 경우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1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과 주류국 벌금, 또 변호사 비용까지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낭패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맨하탄 한인 델리가게의 김 모사장은 경찰과 합의를 통해 벌금납부 1만달러를 조건으로 소송을 끝내야 했다. 여기 에다 주류국 벌금과 변호사 벌금까지 합치면 모두 3만달러 가량을 지불해야 했다. 퀸즈의 한인 델리가게는 지난달 말맥주를 사러 들어온 단속 요원의 함정수사에 걸려 그 자리에서 종업원이 수갑에 채워져 경찰서로 연행되는 일을 겪은 케이스.

이 업소의 이모 사장은 "비즈니스를 10년 넘게 해왔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체포되는 일은 처음”이라며 “처음에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잡혀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시 경범 티켓이 발급되거나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 또 첫 적발시 주류국으로부터 1,500~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 때는 5,000달러, 3차시에는 대략 1만 달러 가량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벌금 폭탄’

미가입자 적발시 10일에 2,000달러씩
일반적으로 3년치 소급 벌금 부과

올 여름 브루클린의 한인 수산업주인 A씨는 뉴욕주 종업원 상해보험위원회(WCB) 조사관에 의해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서 벌금 9만달러를 낼 위기에 처했다. 직원 1~2명과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지만 지난 3년간의 벌금이 모두 소급,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A씨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지난 해 약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맨하탄의 세탁업주 B씨는 최근 WCB로부터 추가 벌금 통보를 받은 경우다. 지난해 3년치의 벌금을 모두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한 벌금을 다시 부과받은 것이다. 약 10년간 사업체를 운영해온 B씨는 앞으로 벌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한숨만 늘고 있다.

최근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는 단속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부쩍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업종보다는 지역별로 보험 관련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퀸즈와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 등 지역의 한인 업주들이 이들 단속과 관련,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 관련 상담 사례만 매달 2~3건으로 최근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플러싱 김철 공인회계사의 설명이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 역시 현재 처리 중인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및 벌금 사례만 12건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1~2

년새 단속 강화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철 공인 회계사는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 3년의 기간을 소급, 벌금을 추징하지만 차후 그 이전 기간의 벌금도 순차적으로 추징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벌금이 사업체 운영 기간에 모두 적용되는 셈이다. 상해가입하지 않는 경우와 한명이라도 가입이 된 경우, 그 차이는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종업원 수에 비해 적은 수의 상해보험을 가입했을 경우는 보험회사와의 프리미엄과 관련한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부인과 남편이 공동 사업주로 등록이 돼 있다면 상관이 없으나 만약 남편이 100% 운영권을 가진 업주이고 아내가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타주 소재한 회사라도 피고용자가 뉴욕주에서 일을 하면 뉴욕주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 서류에서 허위기록이 발견되거나 보험미가입자일 경우 10일에 2,000달러씩, 총 7만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노동국과 보험국에 의해 실시될 수도 있다.

노동국의 경우 연방국세청(IRS)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후 추가 벌금으로 업주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뉴욕주 종업원상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치료를 하고 10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 포스터를 업소에 항상 붙여놔야 한다. 김성수 뉴욕한인 소기업센터 소장은 “종업원 수에 비해 상해보험 가입 수가 적을 경우에는 일단 검사관이 통보를 주고 가는데, 이후 신속하게 보험 에이전트와 연락해 종업원의 수에 맞게 보험 서류를 갖춰서 추가 보고하면 된다”며 “그러나 만일 차후 보고에서 종업원 수와 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나거나 잘못된 기재 사항을 기입한 것이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리치몬드 한인 식품협회

리치몬드 한인식품협회,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

리치몬드 한인식품협회(KAGRO, 회장 김윤옥)가 리치몬드 지역 학생들의 장학기금 마련 및 지역사회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2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날 대회에는 80여명의 지역 협회 회원 및 국제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원 및 지역단체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윤옥 식품협회장은 “KAGRO 회원들은 자라나는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펼쳐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했다”면서 “이 행사를 통해서 기금마련도 하지만, 회원간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KAGRO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마련한 장학금을 연말 송년파티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Gross Champion 유기종 씨 73타.
- Guest F 1. Kevin Adler 2. John Yoo 3. Jeff Rockman
- A조 1. Mothew Cox 2. 조양호 3. 김정훈
- B조 1. 김경원 2. 이희수 3. 김인규
- Ladies 1. Leslie Trexler 2. 장영숙 3. 최규녀
- 남자 장타: 김주한
- 여자장타 : 장영숙
- 남자근접 : 홍진섭
- 여자근접 : 최혜정
- Special Guest: coca cola co, Beliner food, 임광익 회장님

버지니아 한인 식품협회

미성년 술판매 대대적 단속..

위조 신분증 이용 주류 구입

버지니아 페어팩스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경찰의 미성년자 주류 구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NBC는 여름 방학 기간과 개학을 얼마 앞둔 최근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사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 경찰들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남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위조한 가짜 신분증을 내미는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보기에다 미성년자인데) 너무 당당하게 술을 집어서 계산대에 온다. 신분증을 요구하면 ‘아, 깜빡하고 차에 두고 왔다’는 등의 뻔뻔한 핑계를 대기도 한다”고 말했다. 페어팩스 시 경찰에 따르면 이달에만 미성년자 4명이 체인브리지 로드 선상의 셸 주유소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사려다 적발됐다.

불판사용 금지 전국 이슈화

한식당 불판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 페어팩스 카운티 당국이 값비싼 UL제품만 쓰도록 지시한 가운데



ETL측이 “UL과 ETL은 동일한 안전인증 마크”라고 반박하고 나서 불판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TL(Electrical Testing Laboratory, 전기시험연구소) 인증마크 관리사인 인터텍(Intertek)은 워싱턴한인연합회가 만든 불판 대책위원회의 김광식 위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보내왔다. 페어팩스 카운티 단속반은 최근 한인요식업체 단속에서 일방적으로 UL마크만을 지칭, 더 비용이 드는 쪽 인증마크 사용을 종용해 의문을 샀다. 인터텍의 폴 몰리스키 인증담당 국장은 ‘ETL 인증의 승인 관련’이라는 공문을 통해 “우리는 에디슨 조명회사 램프검사를 시발로 100여년 동안 제품 품질검사를 해오고 있다”며 “난방 등 제조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77년부터 제품안전인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ETL은 UL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50개 전체 주와 독립 타운 등 1500여개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UL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TL은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등 북미 전역 보험업계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ETL은 코스코와 월마트, K-마트, 로우스, 시어스

도 인정하며, 국방부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표준협회), NEC(National Electrical Code, 미국 전기기술기준) 등 무수히 많은 기관에서 기준삼고 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의 질의에 답변한 인터텍은 카운티의 단속과정에 UL만 언급한 데 관심을 갖기 시작,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측은 ETL은 아예 제외한채 UL제품만 쓰라고 한식당에 지시했기 때문에 카운티정부가 불공정거래법 등으로 소송까지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는 예상했다.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6월부터 한식당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한식당들은 개당 4000달러 정도인 UL제품 대신 개당 1000달러 수준인 ETL제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소방국에 요청했으나 당국은 이를 거절했다. 한편 안정규정 공개설명회는 오는 27일(화) 오전 9시 30분 메이슨 디스트릭트 정부센터에서 열린다. 불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불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며 한인사회의 정치력을 진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업계뿐 아니라 일반단체 등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법으로 허용한 주가 됐다. 법안 발효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퀸 주지사의 법안 서명식에는 퇴역 군인 짐 챔피언이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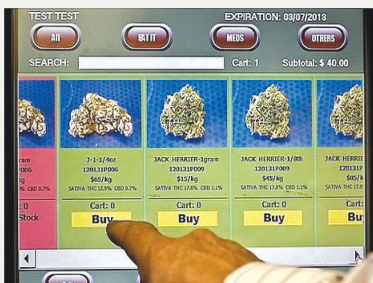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챔피언은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 이용하면 현재 복용하는 약물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된다"며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도 극심한 통증에서 벗어날 방법이 생겨 반갑다"고 말했다.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과 합법화에 찬반 논란이 여전하지만 지지자들은 "암과 에이즈, 다발성 경화증 등 42개 질병에 효과가 있다"며 "독한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안전한 치료제"라고 주장한다.

퀸 주지사는 "일리노이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법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개인이 2주 내에 2.5oz(약 71g) 이상을 처방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샌드위치용 비닐봉지 2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다. 또 처방전을 내는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며 환자에게서 마리화나 처방이 불가피한 중증 또는 만성적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처방 권한은 일리노이 의사면허 소지자에 한해 주어진다. 처방전을 가진 환자들은 일리노이주 60개 지역에 설치된 조제센터에서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개인이 집에서 마리화나를 직접 재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제센터 직원은 신원조회를 거쳐 채용되고 센터에는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설치된다. 마리화나는 일리노이 주정부가 지정한 22개 센터에서 실내 재배될 예정이다.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 허용 대상은 일리노이주 농업국과 보건당국 등 전문 규제기관이 결정한다.

시카고 한인 식품협회

일리노이,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전국 20번째...개인 재배는 금지

일리노이주가 '불법 마약'으로 분류해온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리노이의 팻



퀸(64·민주) 주지사가 1일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시카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50개 주 가운데 20번째

워싱턴 DC 한인 식품협회

불우이웃돕기 골프대회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KAGRO·회장 이요섭)가 8일 한인 커뮤니티의 어두운 구석을 돌보는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인 불우이웃돕기 골프대회는 14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으며 참가자들은 스포츠로 심신을 단련하면서 나눔의 정신도 실천했다. 이요섭 캐그로 회장은 “경기가 안 좋은데도 후원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작년 보다 모금이 더 잘돼 기쁘다”며 “성원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한다”고 말했다. 캐그로는 작년에 처음 개최한 대회에서 모아진 성금으로 워싱턴버지니아통합노인회(회장 우태창), 메릴랜드상록회(회장 박희규), 봉사단체 예진회(회장 박준선)에 각 1,000달러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수상 단체를 조만간 선발해 발표할 계획이다. 캐그로는 불우이웃돕기 기금모금 골프대회와 별도로 매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10여명을 선발해 신년 파티에서 시상하고 있으며 한인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골프대회에서는 남성 메달리스트 상을 장경준 씨가, 여성 메달리스트 상을 유자영 씨가 각각 받았다. 일반 남성 A조와 B조 1등은 이재길 씨와 공성주 씨가 차지했으며 여성조 1등은 김현숙 씨, 시니어조 1등은 김광수 씨였다. 또 장타상 남자 부문은 김창호 씨, 여성 부문은 이경미 씨, 근접상은 최미정 씨였다. 한편 캐그로는 최근 홈페이지(www.KAGRODC.com)를 통해 회원들에게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장은 “ABC 라이선스 취득 방법 등 상인들에게 요긴한 정보가 많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잇달아 출현해 돈을 뜯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5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은 불쑥 가게에 들어와 노동청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업소내 부착된 노동법 규정 포스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후 새 포스터를 강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더구나 업주가 포스터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비즈니스 라이선스 번호를 적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타운 인근에서 델리 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가짜 노동국 직원으로부터 100달러를 갈취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히스패닉계로 추정되는 남성 4명이 업소에 들어와 다짜고짜 규정에 어긋나는 노동법 포스터가 부착됐다고, 자신들이 갖고 온 포스터를 들이대며 100달러를 요구했다.

“사지 않겠다”고 답하자 비즈니스 라이선스 번호를 달라며, 조만간 벌금 티켓이 우송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놔 어쩔 수 없이 100달러를 주고 포스터를 구입했다.

한인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이모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할 뻔 했다. 업주 이씨는 “새롭게 변경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별별 협박을 다하더니 ‘공무원 아이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우물쭈물 하더니 그냥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인 변호사들은 “어느 정부기관이든 업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특정한 물건을 살 것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 조지아 한인업소 타깃 사기단 주의보
노동청 직원사칭, 벌금티켓 협박후 포스터 강매
최근들어 노동청 직원을 가장한 사기단이 한인 델리 가게에

중가주_CA 한인 식품협회

● 중가주 한미식품상협회 이사회
중가주 한미식품상협회(회장 한찬우 KAGRO)는 지난 6일
마리나 소재 한국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3년 전반기 재



정보고, 하반기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KAGRO는 지난 6월에 개최된 장학금 및 지역사회 돕기 위한 기금마련 골프대회 결과보고를 통해 행사의 부족했던 점들을 확인하고 하반기 사업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해 나가기를 다짐했다. 한찬우 회장은 “갈수록 사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함께 단합해 헤쳐나가지자”며 “후반기에는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캘리포니아주 시간당 10달러 최저임금 통과

시간당 최저 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12일 주의 회를 통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서명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은 주 상원이 26 대 11로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밤 하원도 51-25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 시킴으로써 5년 만에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이 오르게 됐다.

이 법안은 현재 시간당 8달러인 최저임금을 내년 7월1일부터 9달러로 올리고, 2016년 1월1일부터 10달러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완료된 뒤 루이스 알레호 주하원의



원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5명 가운데 3명이 26세 이상의 근로자”라며 “열심히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협회

● 푸드 스탬프 머신 갱신 날짜 확인 하세요

기한내 갱신 못하면 푸드 스탬프 취소

- 연간 총 매출액 푸드 스탬프 퍼센트 등 기재해야

연방 정부가 식품업소의 주요 결재 수단 가운데 하나인 푸드 스탬프 머신을 업데이트하면서 업소별 매출액을 확인할 뿐 아니라 지정된 기간 내에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푸드 스탬프 취급 자격을 취소하는 등 경직된 행정으로 일선 업소들을 불안에 몰고 있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협회는 8일 “일선 업소에서 취급하는 푸드 스탬프 머신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며 당국의 지시대로 갱신하지 않으면 푸드 스탬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 농무성은 올 초부터 일선 업소에 편지를 발송해 푸드 스탬프 머신에 대한 점검과 갱신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푸드 스탬프를 취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푸드 스탬프 취급 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업소들은 일차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연방 농무성에서 요구하는 대로 각 업소별 영업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일선 업소들은 편지를 통해 업소별 RCN(Reauthorization Customer Number)와 비밀 번호를 받게 되며 이 번호로 온라인을 접속해야 한다.

온라인을 접속한 후 업소 주소와 업주 인적사항, 재고, 연간 매출총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푸드 스탬프로 판매가 가능한 품목과 불가 품목을 구분해서 기재하고 품목별 매출액을 퍼센티지로 기재하도록 요구해 일선 업주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다.

또 업주들에게 발송한 편지를 통해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성 권유를 통해 “만약 종업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푸드 스탬프 규정을 어기면 더

이상 푸드 스탬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해 일선 업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연방 농무성 당국은 업데이트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푸드 스탬프 취급 자격이 정지되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신청서를 새로 접수해 인스펙션을 통과하고 다시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일선 업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봄에 배달된 편지를 이해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할 뻔 했던 L씨는 “영어가 부족해 편지를 가계 한 편에 두고 잊고 있었는데 우연히 가게에 들린 지인이 발견하고 내용을 알려줘 마감 이틀 전에 업데이트 했다”고 밝히고 “작년에 IRS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의 연간 총매출액과 핫 푸드, 일반 상품, 푸드 스탬프 가능 상품 등을 분류해 업데이트 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L씨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푸드 스탬프가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상세히 제출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적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K씨는 지난 5월에 배달된 업데이트 관련 편지를 받지 못한 케이스. 편지를 받지 못해 날짜를 넘긴 K씨는 푸드 스탬프를 받지 못해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당국에 편지가 배달되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당국은 “미국의 우편 시스템은 정확하다”며 어필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K씨는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어필을 해도 다 인정하던 당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이 “푸드 스탬프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의지”와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국도 유휴정책보다는 원칙대로 하는 것 같다”며 갈수록 힘들어지는 사업 환경을 원망했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의 우완동 회장은 “일단 자격을 상실하면 새로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 규정이지만 자격을 회복할 때까지 수 개월 동안 푸드 스탬프를 받지 못하면 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라며 업데이트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 업데이트를 마칠 것을 당부했다.

●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금지 될 듯

펜주 상원 입법 추진...플라스틱 백 사용시 2센트 부과

펜주 상원이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린 리치 상원의원은 최근 “주내 식품업소에서 물건을 담아 줄 때 플라스틱 백을 사용할 경우 한 장당 2센트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2센트의 비용 가운데 1센트는 주정부에 귀속돼 주 정부의 리사이클링 사업에 사용되며 나머지 1센트는 업소의 리사이클링 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 법안이 입법화 되면 소비자들은 업소에서 종이 백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신의 백을 직접 가져 오거나 플라스틱 백을 2센트씩 주고 구입해야 한다.

결국 업소는 종이 백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며 특히 소형 식품점의 경우 부담이 가중돼 동네 그로서리 등 코너 스토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완동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장은 “플라스틱 백 사용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보다 종이 백 사용시 보조금 지급 등 추가 방안이 구체화 돼야 한다”며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관련 업체들과 협의해 협회 차원에서 공동 구매해 회원들에게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업소에서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이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서 발효 중이거나 입법 계류 중으로 넘치는 플라스틱 백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벌티모어 한인 식품협회

● 메릴랜드주 푸드스탬프 사기 적발

연방 정부의 저소득층 및 빈곤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구 푸드스탬프)을 악용해 수백만달러의 나랏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연방수사국(FBI)은 한인

4명을 포함한 9개 마켓 업주들이 푸드스탬프 사기 및 계좌이체 사기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지에서 마켓 등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지급된 데빗카드 형식의 식료품 지원카드(EBT)의 허점을 악용해 업소당 60만달러에서 200만달러까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사기 액수는 총 700만달러에 달한다고 FBI는 밝혔다.

FBI에 따르면 각 식료품점 업주들은 저소득층 수혜자가 EBT 카드를 가져오면 식료품을 판매하는 대신 1달러당 50센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깡’을 해주고 이후 연방 농무부의 푸드스탬프 지급액이 지불되면 불법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해 나머지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연방 농무부는 푸드스탬프 취급점이 수혜자에게 물건이나 식료품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FBI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한인 4명은 2010년 10월부터 2103년 7월 사이에 푸드스탬프 사기행각을 벌였다.

메릴랜드주 카톤스빌에서 마켓을 운영하던 한인 여성 조모(66)씨와 아들 조씨(40)는 이같은 수법으로 140만달러를 편취했으며, 로즈데일의 그로서리 업주 김모(38)씨는 75만달러, 엘리콧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김모(51)씨는 60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BI는 이들에게 지급한 연방 농무부의 지원금이 실제 식료품 구입비로 쓰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기소된 한인 식료품점 업주들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푸드스탬프 사기 최고 20년, 계좌이체 사기 최고 20년 등 각각 총 40년형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FBI는 밝혔다.

● 볼티모어시 조닝법 개정안에 반대

볼티모어시 조닝법 개정안에반대하는 한인상인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희)는 내달 3일 열리는 시의회 공청회에 앞서 26일 오후 볼티모어 한인노인센터에서 사전 전체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광희 위원장은 다음 주 공청회는 한인상인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자

결전의 장이라며, 대거 참여할 수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이전 공청회에동원돼 지지 입장을 밝힌 주민들은 대부분 이번에 공청회가열리는 파크 하이츠에서 왔다”며 “장소가 협소하므로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가능한 공청회2시간 전에 와 달라”며 “발언희망자는 사전에 연락, 내용을조정해 효과적으로 전달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비대위가 고용한 로비스트회사의 리사 해리스-존스 변호사는 “공청회가 찬성 의견이 드센지역에서 열리므로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인들을 지지하는 주민이나 커뮤니티 지도자가 참여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해리스-존스 변호사는 “토지용도 소위에서 7명의 의원 중 과반수가 반대하면 기각된다”며 “소위 의원 중 4명이 동조하고있으므로 전망은 어둡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소위의 결정은내년 3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서 일부 상인들은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미셀 하)의 협조와 지원이 미흡하다며 독자적인주류협회의 설립을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을 심의하는시의회 토지용도·교통위원회(Land Use & Transportation Committee)는 24일부터 11월20일까지 10차례의 세부 항목별 공청회를 열어 마지막으로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들 공청회 중 주류업소 관련 조항에 대한 공청회는 내달3일 오후 5시 15분 파크 하이츠의 투완다 커뮤니티 센터에서열린다.

● 한인 주류업소에 무리한 처벌 시도

볼티모어시주택국이 한인 주류업소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처벌을 시도, 한인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주택국의 처사가 시에서 추진 중인 새 조닝법 적용을 위한 명분 쌓기용 사전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빅 빌스 리커’(1232 N. Caroline St.)를 운영하는 전노수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부이사장에 따르면 주택

국은 지난 2월 22일 인스펙션을 통해 전씨의 업소가 조닝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지서를 보냈다. 주택국은 전씨의 업소가 주점(Tavern)으로 조닝이 돼 있지만 주류판매점(Package goods)처럼 영업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국은 전씨 업소에 대한 처벌을 시 지방법원에 제소했지만 전씨가 변호사를 고용해 강력 대응하자, 이를 기각하고 조닝위 공청회(Hearing)로 처리를 돌렸다. 전씨는 “관할 기관인 리커보드에서도 운영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주택국에서 30년 전의 조닝법을 적용해 무리하게 처벌을 하려하고, 법원에 제소한 것도 유례를 찾을 수 없어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새 조닝법 발효와 관련 주류 업소 운영조항 변경 권한을 가진 주 경제위원회에 판례 혹은 사례로 제출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종섭 KAGRO 이사장은 “그동안 별 탈 없이 영업하며 리커보드의 인스펙션을 모두 통과한 전씨의 업소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조항을 들먹여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주택국의 트집 잡기”라며 “전씨의 업소에 적용된 조항이 확정될 경우 40여개의 한인업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 업소에 대한 공청회는 오늘(17일) 오후 3시 시청 215호실에서 열린다. 박 이사장은 “주 7일 업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며 공청회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인상인들은 이날 오후 2시 시내 KAGRO 사무실에서 모여 함께 갈 계획이다.

시애틀 한인 식품협회

● 워싱턴주 마리화나 판매업소 334개로 제한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를 판매 할 수 있는 업소 수가 334개로 제한됐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은 지난 4일 총 334개 업소에 대한 마리화나 판매를 승인하기로 결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업소는 지역 주민수를 기준으로 시애틀에 21개, 킹 카운티에 61개,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35

개가 각각 배정된다. LCB는 또 워싱턴주의 마리화나의 생산량을 연간 40톤으로 규정하고 재배 업소의 최대 면적을 3만 평방 피트로 제한했다. 이날 통과한 수정 정책들은 오는 10월 초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며 이르면 10월 16일 LCB의 최종 승인을 받아 11월 17일부터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재배, 가공, 판매 면허는 12월 중순 발급되며 내년 봄부터는 이들 업소들이 영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 KAGRO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에 135명 참여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KAGRO · 회장 김선재)가 자선골프대회를 열어 7,000여 달러의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지난 29일 레이시의 흑스 프레리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회원과 벤더는 물론 일반 골프 동호인 등 135명이 출전해 소낙비 등 궂은 날씨도 아랑곳 하지 않고 ‘꿈나무 돕기’라는 KAGRO의 좋은 취지에 적극 동참했다. 김선재 회장은 “대회 당일 7,000여 달러를 모았지만 향후 벤더들의 후원금을 계산에 넣으면 올해도 1만 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후세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약속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회원들 모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장학금을 연말 ‘경영인의 밤’ 송년행사에서 엄선된 장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2언더를 친 최운씨가 남자부 메달리스트에, 2 오버를 친 알렉사스 송씨가 여자부 메달리스트를 각각 차지했다.



KT&G



Absolutely

CARNIVAL

MADE IN KOREA



SURGEON GENERAL'S WARNING: Quitting Smoking Now Greatly Reduces Serious Risks to Your Health.

Global Trading Inc. (KT&G USA)

Address : 2605 North Van Buren, Enid, OK 73703 USA

Toll Free(Order) : 1-877-580-5506 / Fax : 1-580-237-0610

제1차 알코올 매니지먼트 교육 완료—강사 10명 배출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Miller & Coors 협동 프로그램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8월27일 총연산하 챗터 대표들을 대상으로 “Providers of the TIP Programs” 강좌를 실시해 전원이 총연과 챗터의 교육 기능을 한 단계 더 높였다.

“Providers of the TIP Programs”은 주류 취급 업소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교육하는 강사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한

인 강사가 없어서 미국인들에게 강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시간상 문제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가 겹쳐 그냥 넘어가는 등 미숙한 대처로 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실시된 강좌는 Miller & Coors사에서 제공한 강사 양성 과정으로 Miller & Coors사의 무어 씨가 강의를 맡았다.

이번 강좌는 지난 48차 총회 때 “미 전역에서 알코올 취급 및 판매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알코올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48차 총회때 수강을 신청한 중가주 챗터와 애리조나 챗터, 오레곤 챗터, 덴버 챗터, 뉴욕 챗터, 매릴랜드 챗터, 워싱턴 디시 챗터와 버지니아 챗터에서 파견한 지역 대표 10명이 강좌를 수강하고 테스트를 거쳐 강사 자격증을 취득, 각 지역의 일선 업소들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강좌를 개설해 한국어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강의를 수강한 오레곤 챗터의 김주한 전화장은 “아침 8시부터 오후7시까지 빽빽한 일정으로 강의가 진행됐다”며 “충분한 내용 설명부터 2인1조로 실습하는 것까지 다양한 내용을 알차게 수강해 지역 회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확실한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밝혔다.

허성철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은 “알코올 취급업소가 각종 단속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간단한 규정도 실수로 어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확한 규정 숙지와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각 챗터 임원들이 지역 회원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 자격을 취득한 것은 총연과 챗터가 회원들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지름길로 총연이 그동안 추구한 가치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허성철 회장은 또 “이번에 교육을 받지 못한 타 지역 챗터 대표들을 위한 추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며 “알코올 관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일선 회원들이 직면하는 각종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연중 상설 프로그램 개설 등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연 관계자들은 “총연과 Miller & Coors사가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의 길로 가는 사례로 타 제조업체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더 많은 업체와 더 많은 협력 프로그램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신이 보유한 ATM 은 장애인들을 위해 반드시 변경해야합니다.

대부분의 ATM 을 보유한 소유주들은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법을 모르거나 ADA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장애인이 법적 고소할경우 첫 위반시 \$55,000 및 다음 위반시 \$110,000 의 벌금을 개별로 물게 되어있습니다.

ADA 는 무엇입니까?

ADA 에 의거 장애인의 편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0 년에 개정된 ADA 는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에 의거 ATM 에 ADA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ADA 법 규정이 ATM 에 반드시 요구하는것은 무엇인가?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의 707 항에 의거 ATM및 ATM 에 관계되는 생산공장,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ATM 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해 아래사항이 필요합니다.

- 장애물이 없는 정리된 실내 바닥 및 실외 공간 에 ATM 설치;
- 모든제어가 실시 가능한 부품;
- 입력 및 음성출력시 개인정보를 보호할수 있어야 함;
- 영수증에 대한 오디오 기능 설치;
- 향상된 촉각적 인식 입력기능 설치;
- 시각적 이미지를 대조 할 수있는 키기능 설치;
- 점자 표시 기능 지침 설치.

다른기능과 예외에 대한 설명은 현재 거래하고 계신 ATM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ATM 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가?

Tranax / HyoSung MB 1500, 1000, 2100, Triton 9100, 9600, Tidel 등 ATM 은 업그레이드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일부 기종은 ADA 준수사항에따라 한가지이상을 준수해야합니다.

언제가 마감일 입니까?

2012 년 3 월 15 일로 이미 마감일은 지났습니다. 이에따라 즉시 시정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자세한 문의 사항은 현재 거래하고 계신 ATM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www.ada.gov 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Joseph Lee, President, iBank ATM, Columbia, Maryland

Email: joseph.lee@tdicompany.com

Phone: 866-465-3785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함께하는 K-푸드멘터리@전북



올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는 전라북도 곳곳의 음식과 문화를 세계의 많은 이들과 함께 체험하고 공유 합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사계절과 함께하는 계절한식을 선보이는 기획전시 '한식사계',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길거리 음식의 진수가 펼쳐질 특별이벤트 '길거리음식열전', 현장에서 맛보는 최고의 전북음식을 만나는 한식투어 '한국인의 밥상'이 진행됩니다.

- 기간 : 2013년 10월 24일~28일
- 장소 :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광장



특별 이벤트

길거리음식열전 : Street K-Food

값 싸고 맛있는 한식, 거리로 나가 줄 서시오~!

값 싸고 맛있는 한식, 거리로 나가 줄 서시오~!
시골벽적인 거리에서,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맛보는 길거리음식에 외국인들은 엄지 손가락을 치켜 듭니다. 역사와 문화가 위풍당당한 길거리음식이 소개되고,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음식을 대규모 인원이 함께 만들어보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한국의 대표 길거리음식 거리 재현
체험 이벤트 : 떡볶이, 호떡 만들기 등
세계가 사랑한 길거리음식 : 한류스타,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의 길거리음식

특별기획전시

한식사계(韓食四季) : Season K-Food

한국인은 왜 비벼먹고, 찜 싸먹고, 말아먹는가?

특별기획전시 '한식사계'에서는 아름다운 한국의 사계절마다 차려지는 한식의 성찬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곳곳의 내로라하는 한국음식의 역사와 가치가 음식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으로 여러분의 오감을 두드립니다.

한식의 봄 Ferment : 한국의 장/장 담그기, 메주 만들기 체험
한식의 여름 Harmony : 한국의 비빔음식/ 썸밥 먹기 체험
한식의 가을 Harvest : 한국의 오곡과 떡/떡메치기 체험
한식의 겨울 Save : 한국의 김치와 젓갈/ 김치 담그기 체험

한식투어

한국인의 밥상 : Soul K-Food

한식의 비밀은 촌스러운 그 곳에 있다!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한식여행은 지역 고유의 음식과 문화, 관광을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충분히 맛보지 못한 최고의 맛과 두 번 발길이 약속되는 음식문화와 음식관광의 매력으로 초대합니다.

세계 유일의 국제인증 발효식품박람회

제11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국제 발효식품엑스포 1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2003년 세계 최초로 발효식품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및 발효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된 산업엑스포이다. 발효식품엑스포는 기업, 바이어, 소비자를 모두 아우르는 행사로 지난 10년 동안 총 2,0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가하여 총 2,800여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3,000억원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260만명이 행사장을 방문했으며, 지난해 참가업체의 B2C 현장매출은 33억원에 달했다. 또한 국제발효컨퍼런스, 세계발효마을연대회의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으로 세계의 우수 식품관련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발효 식품 메카 = 한국이라는 등식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전주국제 발효식품엑스포 2



참가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 지원
 발효식품엑스포는 참가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 지원에 주력하여 전문적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엑스포 참가업체의 전체 B2B 상담실적 502억원, B2C 현장매출은 33억원에 달했고, 기업과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십여 건의 해외시장 진출 계약을 이끌어 냈으며 홍콩무역발전국, 대만무역센터, 세계한인무역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모션 확대를 기업과 기업을 연결한 신상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차별화된 기획전시, 세계 발효 네트워크의 중심 인프라 구축
 발효식품엑스포는 음식에 담긴 가치와 건강, 문화를 한 눈에 아우르는 차별화된 기획전시로 참관객들을 사로잡았고, 발효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발효신기술, 안정성, 미생물 등 발효식품의 핵심적인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일조하였으며 세계발효마을연대회의, 외교사절단 교류를 통해 학술, 산업, 문화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과 기업, 기관과 기관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공동발전을 모색케 하는 발효인프라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주국제 발효식품엑스포
3

올해가 더욱 기대되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20개국 350개사의 업체가 참여하여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 등 한국 전통발효식품과 터키의 대표적 절임식품인 두루를 비롯해, 맥주, 치즈, 와인, 사케, 살라미 등 각 대륙의 발효식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홍삼말기잼, 땅콩나물효소, 블루베리주 등 이색적인 상품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어 바이어와 관람객의 주목을 끌 예정이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각 자치단체들의 선도사업 클러스터 등이 참여하여 별도의 산업전시관을 구성할 예정이며,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제품들을 모은 <2013 신상품전>을 구성하고, B2B 수출상담회를 행사 기간 전일 상시 운영하며 참가업체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발효라는 콘텐츠로 식품, 문화, 과학, 산업을 접목해 시장을 새롭게 이끌고 있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국제전시회로서의 위상 확보, B2B와 B2C 통합 비즈니스의 장

2003년 첫해와 비교하여 참가국 2배(9개국개국), 행사규모는 60% 이상 증가하였고, 수출구매상담회와 세미나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B2B와 B2C를 총망라한 통합 식품 비즈니스의 장을 구축했다. 또한 2010, 2011, 2012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국제인증전시회에 이어, 2012, 2013 유망전시회에 선정되어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과 글로벌 식품전시회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발효식품엑스포는 수천여 개의 발효식품들이 전시되어 바이어와 일반소비자들은 물론, 신상품 발굴과 한국시장 진출,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해 각국의 식품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발효 식품엑스포를 찾고 있다.



전주국제 발효식품엑스포
4

협력기관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연구소, 일본요코테발효문화연구소, 순창장류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세계한인무역협회, 국제한인식품 및 주류상총연합회, 대만무역센터,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수입업협회 등

제11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 기간 : 2013.10.22(목) ~ 24(월)
- 장소 :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 주최 : 전라북도, 전주시
- 주관 : 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 규모 : 20개국 350개업체 400부스(45,000㎡)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한인무역협회, 국제한인식품 및 주류상총연합회스리랑카 흥차클래스

[세부 행사 내용]

1. 퍼블릭관 : 국내 250개 업체 3,000여 상품 전시
 - 기업 및 제품 홍보 비즈니스 마케팅
 - 명품 발효 식품 판매 활성화
2. 트레이드관 : 해외 20개국 50개 업체, 지역특화클러스터전
 - 해외기업전 : 아시아, 유럽,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기업 상품전
 - 지역특화클러스터전 : 국가식품클러스터, 각 지역 특화산업 상품전
3. B2B무역상담회 : 우수 발효기업과 바이어가 만나는 1:1 수출구매상담회
 - 우수바이어 200여명 참석(국내 100명, 해외 100명)
4. 국제발효컨퍼런스 : 발효 신기술 향유와 발전방안논의
 - 발효신기술을 주제로 5개국 400여명 참가(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등)
5. 특별기획전시 : 한식사계(세계절마다 차려지는 한식 성찬 전시)
6. 세계발효마을연대회의 : 우수 발효마을의 선진지간 협력과 발전방안 모색
 - 참가 : 10개국 60여명 참가(각국 상무관, 농무관, 기업대표 등)
7. 세미나 : 해외시장 진출, 무역 실무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8. 발효아카데미 : 세계 주요 발효식품 교육 및 시식 - 유럽/남미 와인클래스, 일본 사케클래스, 홋카이도 치즈클래스, 스리랑카 흥차클래스
9. 부대행사 : 각종 발효식문화교육체험, 길거리음식열전
10. 2013 IFFE 신상품전 : 참가업체의 주요 신상품 전시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2013. 10. 24 ~ 10. 28
전주월드컵경기장 Jeonju Worldcup Stadium

www.iffex.or.kr

문의 : 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규원1동 710-6 5층
전화번호 : +82-63-272-8398
홈페이지 : www.iffex.or.kr

Business News

5만달러 미납 세금 분할 납부 가능



매년 소득 보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는 납세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연방 국세청(IRS)에 내야 하는 납세자들도

있다. 이 때 갚아야 할 세금이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 이를 수 있어 한번에 완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IRS로부터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면 IRS가 제공하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확인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것이 좋다. 당장 돈이 없다고 미루다가는 세금 미납 벌금에 이자까지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세금은 체크나 머니오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전자세금청구시스템(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크레딧이나 데빗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에 따라 세금 납부에 별도의 수수료를 붙이기는 하나 IRS에서 제공하는 용자 프로그램의 이자보다는 저렴하다. 만약 한번에 세금 납부가 어렵고 IRS 용자도 받지 못한다면 미납 세금이 5만달러 미만인 체납자에 한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IRS에서 온라인 납부 동의서(IRS Online Payment Agreement)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데빗카드를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만약 미납 세금이 5만달러 이상인 세납자는 별도로 9465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승인된 경우 105달러의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을 갚기가 어렵다면 IRS와 협상

을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IRS는 오퍼 인 컴프로마이즈(Offer-in-Compromise)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불 또는 할부로 세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세납자 중 자격 심사를 통해 세금을 줄여준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나 문의전화(800-829-367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과금 납부 독촉하는 전화사기가 기승

정부기관 공무원이나 전력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공과금 등이 밀렸다면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범죄 유형이 세무기관 사칭으로까지 확대되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인들까지 동원되는 등 더욱 지능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이같은 사기에ハマ터면 세금 납부액 수천달러를 날릴 뻔 한 경우다.

김씨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해서 영어로 3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는 매출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전화사기가 많다는 소리를 들어서 ‘노 잉글리시’를 외치고 끊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사기범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에게 곧바로 걸려온 두 번째 전화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인 남성이었다. 중년 목소리의 이 한인 남성은 공무원이라면서 매출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므로 오늘까지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콜렉션 업체로 넘기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이나 DWP 등 전력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건당국의 위생 감사원이라고 속이며 선불카드 등을 이용해 밀린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협박까지 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려온 가운데 한인



까지 가담돼 세무 당국을 사칭하는 사기수법이 한 인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이미 CPA를 통해 관련 세금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말했지만 그는 무조건 오늘까지 송금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며 “처음에는 믿었다가 다시 전화해 이름과 소속을 요구하니 전화를 끊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인 전문가들은 전화사기범들이 분기별 세금을 납부하는 한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신중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돈을 요구하는 전화사기 수법은 ▲각종 고지서를 부과하는 전기회사 등 사설업체 ▲가족이 체포됐으며 보석금을 내라는 수사기관 ▲은행 직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도용 등이 많았다.

강신용 공인회계사는 “올 상반기 거주 조세형평위원회는 회계사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고객 매출 관련 세금미납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며 “누군가 전화로 ‘판매세, 소득세, 급여세’ 등 세금미납 독촉을 한 뒤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하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세형평위원회가 징수하는 자영업 관련 각종 세금 안내는 ‘문서로 작성된 고지서’로 이뤄진다.

강신용 공인회계사는 “올 상반기 거주 조세형평위원회는 회계사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고객 매출 관련 세금미납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며 “누군가 전화로 ‘판매세, 소득세, 급여세’ 등 세금미납 독촉을 한 뒤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하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세형평위원회가 징수하는 자영업 관련 각종 세금 안내는 ‘문서로 작성된 고지서’로 이뤄진다.

‘네이키드 주스’ 허위 라벨 광고 집단소송

지난 6년간 천연주스로 알려진 ‘네이키드 주스’ (Naked Juice)를 구입한 적이 있다면 최고 75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인 펍시코사가 네이키드 주스의 허위 라벨 광고를 이유로 소비자들에 의해 집단 소송을 당한 후 지난 달 9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9월27일과 2013년 8월19일 사이에 네이키드 주스를 구입한 소비자는 최고 75달러의 합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네이키드 주스 소비자들의 신고 및 배상을 위한 웹사이트(<http://www.nakedjuiceclass.com/>

FileClaim/UnknownClaim)가 지난주 개설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확인한 후 12월17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등록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네이키드 주스의 구입 증거인 영수증이 있을 경우 최고 75달러까지, 만일 없다면 45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보상 액수는 주스 구입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 미 전역으로 유통되는 네이키드 주스는 유전자 변형 물질(GMO)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천연 재료(All Natural)’ ‘100% Juice’ 제품이라고 라벨과 광고를 통해 홍보해 왔지만 실제로는 GMO 제품이 함유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2011년 11월 LA 카운티 수피어리어 코트에 한인 지나 박씨의 주도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후 2년만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주한인 주민등록증 발급

오는 2015년부터 미국 등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국외이주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한국 안전행정부는 한국시간 6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계획을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에는 한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거나, 장기체류허가를 얻어 국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은 한국 국적이 유지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국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Dietary Revolution

While our products were designed with diabetics in mind, we at **breaDr.™** **whole wheat bread** know that many Americans not affected by diabetes are striving to live a healthy lifestyle and can also benefit from our products.

Low Glycemic Index
Reduced Carbohydrate Content
Rich in Protein
Rich in Fibers

**Healthy Living Should
Not Be a Struggle**

Many people monitoring their blood sugar levels struggle with a healthy diet because functional foods often taste bland. **BreaDr.™** recognizes this and ensures healthy products with **a delicious taste - and authentic flavors as, a healthy lifestyle should be.**

Now more than ever, people need facts so they can take control of their health and reach personal freedom through a healthier lifestyle.



You can join us in our mission.

허리 관리 잘하면 4억 번다!

호모 헨드레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이전보다 연장되었다. 삶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이에 대한 준비 없이 100세를 맞을 경우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우려하는 무전장수(無錢長壽)도 문제지만 여러 질환에 시달리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有病長壽) 또한 심각한 문제일 터. 흔히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고혈압, 당뇨, 암 등을 꼽는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은 ‘허리’다. “요통은 국민 80%가 살면서 한 번쯤 겪는 증상이다. 물론 가벼운 통증의 경우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받으면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요통을 겪는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척추질환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여러분병원 김정수 원장은 말한다. 대표적인 척추질환은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수핵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이 있다. 전자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수핵이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밀려나거나 파열된 것을 말한다. 후자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해 뼈 사이의 관절 부위나 인대 등 주변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이 원인이다. 이럴 경우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통증이 생긴다.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간과할 수 없는 대표적 질병은 척추질환이다. 신체를 지탱하는 허리가 아프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뜻.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한 허리 관리에 대해 여러분병원 김정수 원장에게 들었다.

운동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조직 내에서도 실질적인 핵심 업무를 맡은 사람을 가리켜 ‘팀의 허리’라고 말하지 않는가. 허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으로 척추를 관리해야 한다. 1970년대에는 목 디스크 환자가 많았다.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녔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잘못된 자세로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척추에 무리를 줘서 질환을 야기하기 쉽다. 매일 양치질을 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서 치아를 관리하듯 척추 또한 마찬가지다. 바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고 한 자세로 오래도록 있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병원 치료보다 운동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 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스트레칭과 걷기이다.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하면서 운동이라고 할 수 없듯(이는 엄밀히 말해 노동이다) 생활 속 도보를 걷기 운동과 동일선 상에 놓을 수 없다. 걱정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한다.



제12대 집행부 명단

| | | |
|----------|-------|---------------------|
| 회 장 | 허 성 철 | New York |
| 대외수석 부회장 | 김 영 필 | Canada |
| 대내수석 부회장 | 캘빈 최 | Arizona |
| 부 회장 | 허 종 | Southern California |
| 부 회장 | 이 종 환 | Harrisburg, PA |
| 부 회장 | 이 광 서 | Maryland |
| 부 회장 | 어 윤 환 | Washington D.C |
| 부 회장 | 김 익 주 | Canada |

이 사

| | | |
|-------|-------|--------------------|
| 이 사 장 | 홍 진 섭 | Washington D.C |
| 부 이사장 | 김 백 규 | Georgia |
| 부 이사장 | 임 희 철 | Philadelphia |
| 부 이사장 | 김 세 기 | Chicago |
| 부 이사장 | 김 희 준 | Central California |
| 부 이사장 | 이 현 오 | Washington |

본부 임원

| | | |
|-----------|-------|--------------|
| 사업 총괄 부회장 | 강 병 목 | New York |
| 여성분과위원장 | 김 윤 옥 | Virginia |
| 총무 부장 | 유 인 현 | Philadelphia |

감사

| | | |
|-----|-------|--------------|
| 감 사 | 이 승 수 | Philadelphia |
| 감 사 | 임 광 익 | Colorado |

고 문

| | | |
|-----|-------|---------------|
| 고 문 | 김 기 옥 | Washington,DC |
| 고 문 | 김 양 일 | Los Angeles |
| 고 문 | 전 기 풍 | Philadelphia |
| 고 문 | 김 치 현 | Los Angeles |
| 고 문 | 구 군 서 | NewYork |
| 고 문 | 김 주 한 | Oregon |
| 고 문 | 김 현 주 | Maryland |
| 고 문 | 한 용 웅 | Delaware |

스 폰 서

MILLER BREWING COMPANY

ANHEUSER BUSH INC

COORS BREWING CO

COCA COLA USA,INC

PEPSICO

*Appreciates the support of its
advertisers and encourage you to
patronize them*



ahh thentic

*No artificial flavors,
no added preservatives.
Since 1886.*

open happiness®

Budweiser

완벽한 조화.
깊고 순수한 맛.

